

교육관료 출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조율

전남도교육감 일부 예비후보들이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나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장만채 예비후보 등 대학총장 등과 양자대결 구도에서 승리하려면 도교육청 출신 후보들의 후보단일화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바람직한 생각”이라며 “그러나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교육계에서도

김장환·서기남·신태학씨 3명 “원칙적 찬성”

장만채씨 등 대학총장과 대결 위해 힘 모아야”

도 교육청에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교육자가 교육감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후보 단일화를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예비후보가 거론한 단일화 후보군은 서기남·신태학 후보 등으로 모두 도 교육청 교육 관료 출신이다. 이들은 광주고 동문 선후배 사이로 동문회 측의 단일화 요구가 거

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후보가 광주고 5회로 가장 선배고, 서 후보는 10회, 신 후보는 13회다.

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 등 3명은 지난주 목포에서 모 케이블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회 직후 모임을 갖고 단일화에 대한 입장 등을 교환했다.

이날 모임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방안이 제시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특히 서기남·신태학 예비후보도 김 예비후보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너무 시일이 촉박한 면이 있다”면서 “조만간 다시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도 “단일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세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교육가족은 물론 전남도민들의 지지율도 높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안순일·이정재·장휘국·고영을 등 5명

전남, 김장환·서기남·윤기선·장만채 등 7명

“무상급식·무상교육” 슬로건 표발같이 돌입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전 본격화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유권자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던 광주·전남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선거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교육감으로서 목표를 한눈에 알게 하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파격적인 공약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감 후보 중 가장 늦게 출사표를 던진 안순일 예비후보는 ‘소질대로 적성대로, 여러 줄 세우기 교육실현’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초·중학교 교육비 부담 제로화·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등을 내걸었다.

이정재 예비후보도 ‘준비되고 검증된 CEO 교육 전문가’를 슬로건으로, 대학 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부정·부패 없는 교육행정 실현,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추대할 진보성향의 장휘국 예비후보는 ‘MB특권 교육 심판·공교육 혁신·무상교육 실현’을 슬로건으로 타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영수 예비후보는 ‘광주교육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지지세력 결집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후보인 고영을 예비후보는 ‘엄마 교육감’을 슬로건으로 교육감 급여 전액 장학금 지급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국시멘트 건물 5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10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자신만의 표점을 부각한 슬로건과 공약으로 표심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김장환 예비후보는 ‘김치는 김장독, 교육감은 김장환’이라는 ‘네임 스토리텔링 기법’을 접목한 슬로건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고 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현 ▲장학기금 1000억원 조성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 등 전남교육의 복지 향상이다.

“따뜻함이 교육을 살린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김경택 예비후보도 나후원 전남교육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인재 양성, 교사의 복지 향상 등을 약속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에서

정적 설명회를 개최하는 서기남 예비후보는 ‘우리 자식 믿고 맡기세’를 슬로건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 통한 사교육비 절감 ▲교육환경 개선·교육복지 투자 확대를 교육 만족도 향상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슬로건을 ‘남도의 자존심 교육이 문제야!’로 정한 윤기선 예비후보는 클린 전남교육도민위원회 구성을 통한 인사권 반납 등을 공약으로 약속했으며, 신태학 후보는 ‘신바람 신태학’이란 짧은 슬로건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학 총장 출신인 장만채 예비후보는 ‘사람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MB차별교육 반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진보성

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광영표 예비후보는 아들인 텔런트 ‘지성’과 함께 합동유세를 계획하는 등 이를 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6.2 선거 (예)후보자 필독!!

우리지역 (예)후보자 검색

이젠!! 휴대전화로 하세요!!

휴대폰 3654+무선인터넷 키

SHOW NATE

(예)후보자 등록문의: 02-2677-7116

■김정일 전격 訪中 노림수는

‘천안함 수세 국면’ 반전 시도

중에 경제 지원 요청 등 다목적 포석

‘위기탈출’ 6자 복귀 선언 가능성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수세적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6자 회담과 관련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5월부터 ‘춘궁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북중간 경제협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천안함 사건 국면전환 노린듯”= 전문가들은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지 사흘만에 다시 북한의 실질적 통치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 점에 주목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연루설로 분위기가 풀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반전을 노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의욕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 김 위원장의 전격 방문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 전향적 결과 기대”=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도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을 되살리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김용현 교수는 “이번 방중으로 당장 6자회담이 재개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북한이 회담 재개 의지를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회옥 교수는 “현재 중국은 6자회담과 천안함 사건을 연계하지 않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일 중국 단둥을 거쳐 다롄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오후 다롄 시내 호텔 앞에서 차량에 오르는 김 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을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북한도 6자회담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양보하는 자세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북중 경제협력 강화”=북한은 올해 100만t 정도 식량이 부족한 중국의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전체 교역량의 75%나 된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중국에 자신들의 체제 유지 버팀목이 돼 달라며 경제원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도 당장 대규모 지원을 하기보다 경제원조를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적절히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자 책봉 윤희 굴욕’ 우려 김정은 동행 가능성 낮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최대 관심사는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의 동행 여부다.

김 위원장 부자의 동행방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지 불과 1년4개월 만에, 공식화 단계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부자가 함께 방중할 경우 자칫 국제사회에 ‘세자 책봉을 윤희 받기 위한 굴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국가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 속에서 어

필 수 없이 유일한 후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기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중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치·경제적 예측’을 크게 우려해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정일·정은 부자의 동행 방중은 청나라 때 세자 책봉 사실을 알리러 가는 것과 비슷한 꼴이 될 수 있는데 가능하겠나”며 동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은 작년부터 전 주민을 상대로 김정은에 대한 홍보전을 펴면서도 그의 얼굴을 광풍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 없는 후계자’를 중국 지도부에 먼저 선보이는 것은 북한 내 주민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www.kimyoung.co.kr

김영면 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227-8088

개강 ▶ 5월 3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영어	거주이민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능력, 한국에 대한 이해와 취업 기회
	분류직업반	1차시험 합격후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 2차 시험에 대비하는 학습과정
편입수학	선형대수반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는 선형대수학의 기초, 미분, 적분, 선형대수학의 응용 학습과정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편입학원 최강교수진	편입학원 최강의 학습법	편입학원 최강의 시설
최강의 편입수학교수진	편입학원 최고의 학습법	편입학원 최고의 시설
최강의 편입영어교수진	편입학원 최고의 학습법	편입학원 최고의 시설

상위권대학편입 / 전남대편입 / 일반편입 / 학사편입 / 사범대편입